

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주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D 국민체육진흥공단



The 20th National Youth Para Games × The 55th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서
함께 뛰는 미래
”



2026
BUSAN

The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The 20th National Youth Para Games

5.12. 화 — 5.15. 금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The 55th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5.23. 토 — 5.26. 화

부산체육 2026. 05 Vol. 90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부산광역시체육회

Vol. 90
2026. 05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부산체육인
전국체전기획단 단장 이정민

푸른 바다, 큰 꿈
롤러스포츠 최예운 선수

Sports is Busan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산광역시체육회

CONTENTS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6년 5월 15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90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문찬식, 공제원, 김성무,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051-500-7900
기획·제작 (주)디자인제로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6. 05 Vol. 90



영정의 부산체육

- 04 부산체육人
전국체전기획단 단장 이정민
- 08 금빛 훈련일지
부산 패밀리산악회 노희주 선수
신정고등학교 노현승 선수
- 12 부산체육을 잇다
연제구체육회
- 16 푸른 바다, 큰 꿈
롤러스포츠 최예운 선수



정상을 향한 질주

- 20 Sports is Busan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24 스포츠&테크놀로지
러닝 앱의 시대,
달리기의 방식을 바꾸다
- 28 스포츠&웰니스
5월에 조심해야 할 질환과 예방법
- 30 부산체육 DNA
파도 위에 그리는 연대기 대한민국
해양스포츠의 심장, 부산



최고의 체육문화

- 34 스포츠 기자단
- 2026 부산오픈 국제남자챌린저 테니스대회
-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 38 종목 소개
롤러스포츠
- 42 스포츠&컬처
전시 <소장품점 - 몸의 증언>



Go! 우리 함께

- 44 BSC 뉴스
- 2026 부산 해양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제37회 부산광역시장기 시민게이트볼대회 개최
- 2026 부산 체육 스포츠주간 행사 개최
- 48 회원단체 소식
- 52 센터 info
-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 56 부산체육 퀴즈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 ‘체육 꿈나무’를 부산이 응원합니다

전국체전기획단 단장 이정민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둔 부산은 곳곳이 분주하다.
그리고 그 분주함의 선봉에 서 있는 전국체전기획단 이정민 단장.
그는 어린 선수들에게 ‘꿈을 향한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16년 만에 부활한 개회식 등 대회 운영에 관해 세심하게 점검 중이며, 특히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를 만나 단장으로서의 각오와 현재까지의 대회 진행 상황을 들어보았다.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부산광역시 전국체전기획단 단장을 맡게 된 이정민입니다. 공직에 입문한 이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미래의 주역인 체육 꿈나무들의 무대를 준비하는 지금이 저의 공직 생활에서 가장 가슴 벅차고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단원 모두가 어린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며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부산체육』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Q 전국체전기획단 단장직을 맡게 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단장직을 맡았을 때는 막중한 책임감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면서 그 열기가 그대로 이어져 17개 시도에서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찾아오는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안전하고 의미 있게 치



러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회를 준비하면서 부담감은 보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일 체육 꿈나무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면, 한 아이에게는 인생 첫 전국 무대이자 평생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는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음에 행정적 지원 이상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경찰, 소방, 구·군 등 유관기관과 1,452명의 시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가 제가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Q 단장으로서 대회를 위해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안전’입니다. 어린 선수들이 주인공인 대회인 만큼 단 한 건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회를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안전종합상황실(소방, 경찰 포함)과 응급 의료·식품·숙박·방역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경기장마다 의료 인력과 구급차를 배치할 예정이며, 민관 합동 경기장 안전 점검 등 경기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이 수송과 시설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회 운영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오직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동시에 부산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즐겁고 행복한 대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개최식, 체험프로그램 등 현장 운영까지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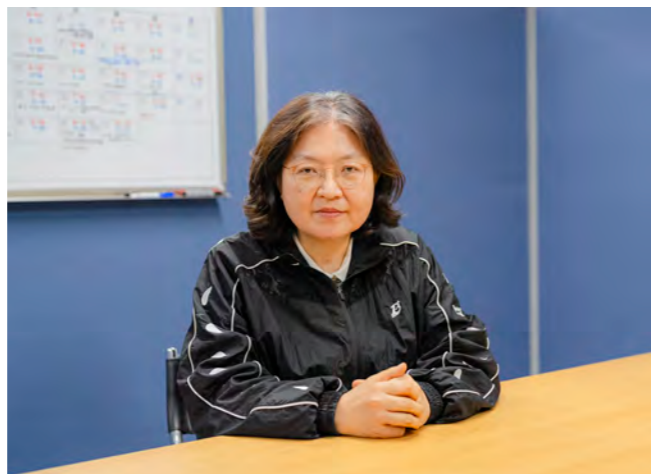


Q 대회를 한 달가량 앞둔 현재 전국소년체육대회 준비 상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17개 시도, 2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40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됩니다. 현재 분야별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경기장은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인프라를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도 적극 활용합니다. 56개 경기장(12개 구·군, 6개 타 시도)에서 체육 꿈나무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 선수단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전세버스, 택시 등 총 725대의 수송 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며, 숙박 및 식품업소 대상 친절교육 및 다짐식을 개최하고 위생, 방역 등을 집중 지도·점검하는 등 선수단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맞이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개최식의 경우, 그간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등의 사유로 개최하지 않았는데, 16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5월 22일에 벅스코 제2전시장에서 ‘꿈의 향해, 부산! 감동의 물결 속으로!’라는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며, 수영야류와 부산농악 공연, 부산의 향토식재료와 문화를 담은 만찬과 레크리에이션이 어우러진 스포츠 꿈나무가 주인공이 되는 감동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무려 2,225명이 지원해 주신 가운데 최종 1,452명을 선발하여 기본교육까지 마쳤으며, 종합상황실 지원, 개최식 및 경기장 안내 등 대회 전반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개막까지 부산시와 교육청, 구·군, 소방·경찰, 유관기관 등과 함께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단장님은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모든 참가 선수에게 ‘부산이 나의 꿈을 함께 응원했다’는 ‘부산의 마음’을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같은 꿈을 가진 선수들이 모여서 즐겼고, 거기에 더해 부산이라는 도시가 자신을 얼마나 진심으로 반기고 응원했는지 그 벽찬 감동이 오래도록 머물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부산 시민에게는 부산이 스포츠가 살아 숨 쉬는 곳을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부산의 저력과 따뜻함을 전국에 알리는 무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Q 단장님께서 그리시는 ‘부산체육’과 ‘체육 꿈나무’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체육 꿈나무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국 대회 출전 경험이 아이의 마음에 평생 남는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인 같은 꿈을 가진 또래들과 꿈과 추억을 나눴던 경험 자체가 먼 훗날 어른이 된 아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부산체육의 미래는 인프라를 넘어, 스포츠를 통해 협력과 배려, 도전정신을 배우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전국도시 부산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뛰는 전국 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스포츠 문화도 함께 발전시키리라 믿습니다.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계기로, 부산이 전국의 어린 선수들에게 내 꿈을 펼칠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기억된다면, 그것이 곧 부산체육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Q 『부산체육』 독자분들과 부산의 체육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5월, 부산이 다시 한번 전국 스포츠의 중심이 됩니다.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특별한 축제이자, 16년 만에 개최식이 다시 열리는 의미 있는 대회입니다. 17개 시도에서 찾아오는 2만여 명의 어린 선수들은 우리의 손님이자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입니다.

『부산체육』 독자 여러분과 체육인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 참석하시어, 경기장에서 마주치는 선수들, 거리에서 만나는 타지 선수단에 따뜻한 응원과 미소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됩니다. 전국체전기획단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이 대한민국 체육 꿈나무들의 가장 멋진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패밀리산악회 노희주 선수, 신정고등학교 노현승 선수

더 높이 더 빠르게, 국가대표 클라이밍 남매의 정상을 향한 쾌속 등반

오는 9월 개최되는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클라이밍 종목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노희주, 노현승 선수. 부산의 간판선수인 두 사람은 뛰어난 실력과 친남매라는 관계성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가족이자 동료로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같은 곳을 향해 오르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타고난 운동 신경과 우연한 시작

노희주, 노현승 선수는 어려서부터 운동 신경이 남달랐다. 노희주 선수는 초등학교 시절 태권도를 배웠던 데다 구름사다리나 철봉에 매달려 노는 게 일상이었다. 그러다 6학년이 되던 해 동네에 실내암벽장이 문을 열었고, 그곳을 먼저 다녀온 친구가 그에게도 방문해 보길 권했다. 이유는 '잘할 것 같아서'. 어린 눈에도 보였던 그의 특별함을 전문가가 놓칠 리 없었고, 역시나 그의 재능을 알아본 지도자는 그에게 클라이밍을 본격적으로 해볼 것을 제안했다.

노현승 선수의 시작도 비슷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클라이밍 일일 체험 전단지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클라이밍장을 찾았다. 처음 접했을 땐 그저 재미있는 정도였던 클라이밍이 하면 할수록 자신의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 “여러 종목을 경험해봤지만, 클라이밍만큼 흥미를 느낀 종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루트를 해결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며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어요. 특히 풀지 못한 루트를 해결한 순간 느끼는 성취감 때문에 클라이밍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루트를 찾아냈을 때의 짜릿함

두 사람 모두 스스로 루트를 파악하고 자신만의 동작으로 완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을 클라이밍의 매력으로 꼽았다. 하지만 노희주 선수는 엘리트 선수가 된 후 그런 매력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고 운동을 그만둬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다.

> “저는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스피드 종목 대표로 선발되면서 제가 원래 좋아하던 클라이밍에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행히 볼더로 종목을 바꾸게 되면서 다시 즐겁게 운동하고 있어요.”

스포츠 클라이밍은 인공 암벽을 오르는 기록을 겨루는 운동을 말하며 스피드, 리드, 볼더 세 가지 세부종목이 있다. 스피드는 경사 95도, 높이 15m, 같은 루트의 암벽을 누가 더 빨리 완등하는지 겨루는 종목이다. 리드는 다양한 각도로 설계된 암벽을 정해진 시간 안에 누가 더 높이 오르는지를 경쟁하는 종목으로, 단 한 번의 도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떨어지면 경기는 그대로 종료된다. 볼더는 퍼즐처럼 꼬아진 고난도의 홀드(암벽을 오를 때 손으로 잡거나 발로 디딜 수 있는 곳)가 배치된 높이 4~5m 내외의 암벽을 오르는 종목이다. 주어진 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도전할 수 있으며 완등 성공 여부, 시도 횟수 등을 따져 순위를 가른다. 경기 당일에 문제(홀드 위치 등)가 공개되므로 대비가 까다로운 종목이다.

노현승 선수는 현재 리드와 볼더 종목에서 활약하고 있다. 두 종목 모두 효율적인 루트를 찾아내는 게 관건인데, 그는 특유의 유연성을 활용해 자신만의 루트를 빠르게 찾아내는 강점을 지녔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

노희주, 노현승 선수는 수많은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번갈아 국가대표로 선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나란히 태극마크를 다는 영광을 안았다. 그들이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타고난 재능을 뛰어넘는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

“10년 동안 ‘이틀 운동, 하루 휴식’ 패턴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휴식도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코어와 하체를 단련하는 거라 운동을 매일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희주 선수는 오랜 시간 지구력 훈련을 해왔다고 한다. 훈련 덕분인지 너무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었을 때도 묵묵히 벽에 올랐고, 그런 시간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노희주 선수는 최근 볼더링 훈련을, 노현승 선수는 리드 종목



에 대비한 루트 반복 훈련과 체력 훈련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 노희주 선수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피드 계주 경기를, 노현승 선수는 ‘2023 국제스포츠크라이밍연맹(IFSC) 서울 스포츠크라이밍 청소년 세계선수권대회’ 볼더 경기를 떠올렸다. 노희주 선수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부상을 당해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팀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평소보다 더욱 혹독하게 훈련한 끝에 동메달이라는 결실을 얻었기에 의미가 남달랐다. 노현승 선수는 처음으로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그동안의 과정이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감격했다고.

함께하는 기쁨, 함께 꾸는 꿈

“반복된 훈련에 지칠 때면 동기부여도 잘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그럴 땐 잠시 흐름을 조절하면서 기본부터 점검합니다. 그러면 다시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감각과 컨디션도 자연스럽게 회복 되더라고요. 결국 꾸준함이 답인 것 같아요.”

노희주 선수와 마찬가지로 꾸준함을 강조한 노현승 선수. 그는 누나인 노희주 선수의 존재도 정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가까이에서 함께했기에 의지가 되는 동시에 좋은 자극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각자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노현승 선수의 말에 노희주 선수도 동감하며 가족과 같은 꿈을 향해 간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인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

“저희 둘 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목표이며, 장기적으로는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치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 운동할 수 있길 바라요.”

노희주 선수와 노현승 선수는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에 각각 볼더와 리드 종목에 출전한다. 노희주 선수는 볼더 종목으로는 처음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노현승 선수는 첫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클라이밍의 세대교체를 이룰 것인지 많은 사람의 기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그들의 노력은 분명 그들을 세계 무대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줄 것이다. 그들이 누구보다 높이, 또 빠르게 완등에 성공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구·군 체육회의 선두 주자

연제구체육회



VIEWPOINT

걷기 대회 개최, 대회 방송 송출 등 누구보다 앞서 차별화된 사업을 시행하며 구·군 체육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연제구체육회는 오늘도 새로운 길을 먼저 걸어가고 있다. 이는 구민을 최우선에 둔 운영 방침에서 비롯된 것이다.

Q. 연제구체육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연제가 행복한 연제’라는 신념 아래 1999년에 생활체육협의회로 출발하였습니다. 연제구체육회는 별도로 설립되어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다가, 2016년 3월에 연제구통합체육회로 통합되었습니다. 2021년 6월,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체육회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법인화 시대를 열었으며, 현재 회장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32명의 임원과 7명의 지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종목 245클럽 9,600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 중입니다.

Q. 연제구체육회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추진 중인 대회 및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성특화체육교실, 해달맛이생활체육교실, 유아체육교실, 다문화가정 생활체육교실 등 맞춤형 체육활동부터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력교실, 주5일제생활체육실천광장 체험형 프로그램까지. 구민 누구나 생활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특화체육교실로 운영 중인 풋살 프로그램의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되기 때문에 모집과 동시에 마감될 정도입니다. 체험형 프로그램의 경우 특히 아동 관련 프로그램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등 거의 모든 회원단체 종목의 구청장기대회 및 협회장기대회를 개최·지원하고 있으며, 회원단체 활성화 사업과 전국 및 시 단위 대회 참가 지원을 통해 지역 체육 저변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Q. 연제구체육회의 대표적인 회원단체를 소개해 주세요.

어느 한 단체를 특정할 수 없을 만큼 28종목의 회원단체가 하나같이 특별하고 소중하며 실제로 모든 단체가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그래도 굳이 하나만 꼽는다면 피클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 피클볼클럽’을 출범시킨 데 이어, 작년에는 ‘제1회 연제구체육회장배 피클볼대회’도 개최하는 등 연제구를 ‘피클볼 1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클볼은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세 종목의 장점만 가지고 만들어졌으며, 부상의 위험이 적고 입문자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체육회장배에 이어 ktHCN과 함께 또 다른 대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Q. 연제구체육회만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접근성이 좋은 온천천을 기반으로 한 구민들의 활기가 넘치는 생활체육 문화입니다. 생활권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ktHCN 부산방송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제구체육회에서 개최하는 대회 대부분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회원단체를 자연스럽게 홍보함으로써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제고와 종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도 자신의 추억을 영상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것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베테랑병원과의 의료협약으로 소규모 대회까지 의료 지원을 확대 하였으며, 대회 개최 시 주최자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함으로써 대회 참가자들이 마음 놓고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제구체육회 회장 김진근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운동을 즐기며 체육과 늘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이어져 연제구체육회 이사로 10여 년간 활동하며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민선 1기와 2기 연제구체육회 회장을 맡아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을 개선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무실을 확장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현장에서 애쓰는 우리 지도자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회원단체가 기존 17개 종목에서 28종목으로 확대되어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된 점도 큰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요즘 피클볼을 즐겨 합니다. 피클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스포츠로, 운동의 재미와 소통의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스포츠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건강한 삶과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매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분이 생활체육을 통해 이러한 가치를 함께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을 통해 지역의 활력과 화합을 이끌어가는 체육회가 되겠으며,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쾌적한 체육환경과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구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여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노력이 연제구체육회의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과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라며 연제구체육회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MINI INTERVIEW

Q. 앞으로 연제구체육회의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종목의 수보다는 질적인 성장에 중점을 두고 한 종목 한 종목을 더욱 세심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종목들이 규모 면에서 더욱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 체계도 잘 갖출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대회 진행 시에는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 만큼 의료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Q. 구민분들과 회원단체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연제구체육회는 일상 가까이에서 구민 모두가 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언제나 구민과 회원단체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과 즐거움을 나누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트랙을 가르는 작은 거인 롤러스포츠 최예운 선수

인라인스케이트를 신고 트랙 위를 달릴 때 가장 행복하다는 열세 살 소녀가 있다. 유치원 시절 놀이터에서 처음 롤러스포츠를 접했던 아이는, 넘어질 때마다 씩씩하게 일어서며 어느새 대회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웃음이 많고, 경쟁을 즐기고, 힘든 순간조차 유머로 넘길 줄 아는 인지초등학교 6학년 최예운 선수. 어느덧 초등부 마지막 시즌을 맞은 그를 만나보았다.



놀이터에서 시작된 꿈

처음부터 선수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니었다. 유치원생이던 시절, 사촌 언니와 함께 놀이터에서 난생처음 인라인스케이트를 신어 봤다. 여느 유치원생과 마찬가지로 스포츠로 접했다기보다 그저 재미로 시작한 놀이었다.

> “그때는 지금처럼 빠르게 달리지 못했어요. 계속 넘어졌죠. 그런데도 다시 일어서 달리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냥 달리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넘어지면서도 웃었다는 그 말이 최예운이라는 선수를 가장 잘 설명해 준다.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시작했다는 것.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그를 트랙 위로 이끄는 힘이 되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김예진 지도자의 제안으로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 “처음에는 합숙을 비롯한 선수 생활이 정말 낯설고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웃음으로 버티는 훈련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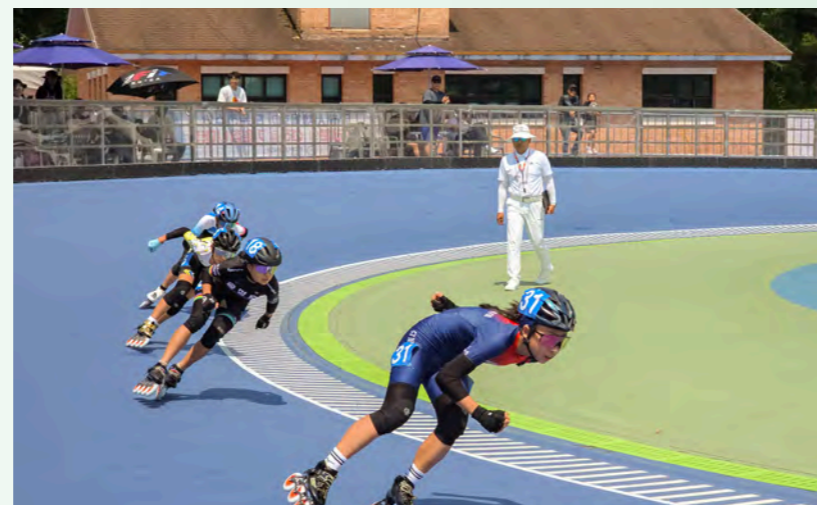
최예윤 선수의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바쁘다. 평소 하루 4시간씩 훈련은 기본이고, 시즌이 가까워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이트장을 떠나지 않는다. 지상 훈련으로 체력을 다지고, 인터벌 훈련으로 폭발적인 순간 스피드를 끌어올린다. 단거리 선수로서 순간의 힘을 기르는 데 특히 공을 들이는 것이다.

훈련 중 가장 힘들었던 기억을 묻자, 잠시 고민하던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고된 훈련을 마친 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제일 힘든 건 훈련 중에 배가 너무 고플 때예요. 배가 아플 정도로 고파서, 훈련 중간에 나가서 먹고 다시 훈련한 적도 있어요.”

부상도, 슬럼프도 아닌 배고픔이라는 대답에서 여느 또래와 같은 어린 선수의 솔직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반복되는 훈련을 버티내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중요한 시즌을 앞두고 스스로 식단 조절을 한다고. 고기를 줄이고 샐러드 위주로 먹으며 체중을 관리하는데, 그것도 그는 군말 없이 해낸다.

“중요한 대회가 있는 시즌에는 고기를 거의 못 먹고 샐러드를 먹어요. 체중이 늘면 그만큼 경기력에 영향이 있으니까 참고 버텨야 해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선택한 거니까 꾸준히 훈련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선수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만인 4학년 때 첫 메달을 땀고, 작년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인전에서 금메달까지 목에 걸었어요. 그렇게 한 단계씩 차근차근 성장해왔다고 생각해요.”

이어서 작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순간의 소감을 묻자 그의 표정이 한층 밝아졌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2등인 줄만 알았고 레이스 1위를 달리던 선수와 거의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2등인 줄 알았어요. 앞 선수랑 거의 동시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 1등이었어요. 믿기지 않았고, 너무 좋았어요!”

힘들다는 말 뒤에 곧바로 따라오는 웃음은 그가 얼마나 롤러스포츠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준다.

최예윤 선수가 스스로 꼽는 강점은 하체 근력과 스타트 순간의 폭발력이다. 출발 직후 치고 나가는 힘이 좋고, 아웃코스 추월에서 상대방보다 유리한 자리를 잡는 데 능하다. 반면 인코스 추월 감각은 여전히 갈고닦아야 할 부분이라고 스스로 인정한다.

“제가 인코스를 보는 센스가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더 많이 연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코스로 잘 파고들 수 있는지 감각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장 빛나는 질주를 향해

최예윤 선수의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종목은 500m+D, 1000m, 릴레이 계주 세 가지다. 단거리와 장거리 모두 출전하는 만큼 종목별로 훈련 방식도 다르게 준비하고 있다. 500m+D에서는 스타트 집중훈련과 스피드 유지 능력을, 릴레이에서는 팀워크와 호흡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다. 경기 하나하나에 뚜렷한 계획이 있다.

“작년에 이어 500m+D 1등 자리를 꼭 지키고 싶고요, 목표는 대회 MVP예요. 조금 더 욕심부리자면 개인전 대회 신기록도 세우고 싶어요!”

힘차게 말하는 목소리에 설렘과 자신감이 넘쳤다. 올해를 끝으로 내년이면 중등부라는 새로운 무대가 열린다. 초등부의 마지막을 자신이 쌓아온 것들을 기록으로 증명하며 마무리하고 싶다는 바람이 그 짧은 말 안에 담겨 있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달리, 경기 전엔 긴장을 많이 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손에 땀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린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름의 방법으로 긴장을 풀어낸다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긴장이 좀 풀려요. 그리고 예선 첫 경기를 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고마운 사람들을 물었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부모님이요. 항상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요. 그리고 김예진 지도자님께서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많이 힘들 때 직접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얘기도 들어주시고, 3년 동안 함께해 주셨거든요. 친구들, 임세연 언니, 김예준 오빠도 고마워요. 지금은 다른 팀이라서 자주 볼 수 없지만, 같이 훈련하고 같이 웃고 했던 추억이 힘이 많이 됐어요.”

고마운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는 그의 표정이 환해졌다. 그의 금빛 질주 뒤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있었다.

넘어져도 웃으며 다시 일어났던 놀이터의 그 아이는 이제 출발선 앞에서 크게 숨 한 번 고를 줄 아는 선수가 됐다. 초등부 마지막 시즌, 최예윤 선수의 질주는 지금 가장 빛나는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경상남도 일원에서 전국 생활체육인들의 최대 축제인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됐다. 부산선수단은 총 9개 종목에서 종합 입상을 달성하며 뛰어난 경쟁력을 입증했고, 참여 확대와 종목별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루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KOREA SPORT FOR ALL FESTIVAL



부산광역시는 이번 대회에 총 36개 종목, 1,429명이 참가해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의 동호인 참여를 기록했다. 이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동호인 중심 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스포츠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종목별 성적을 살펴보면, 먼저 당구 종목에서 전통 강호인 경기도와 서울을 상대로 우수한 경기력을 발휘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남자일반부 캐롬 3쿠션(59세 이하)과 일반부 캐롬 프리쿠션(59세 이하), 포켓볼 애니콜(74세 이하)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일반부 캐롬 프리쿠션(74세 이하)에서는 준우승을 기록했다.

국학기공 단체전 부문별 수상 결과, 64세 이상부에서 부산광역시국학기공협회 소속 '천신무예 한마음 클럽'이 1위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부산선수단은 2년 연속 종합 준우승을 달성하며 꾸준한 경쟁력을 입증했다. 체조 종목에서는 부산여자대학교 팀이 생활댄스체조 일반부 부문 1위를 차지하며 이 분야 8연패를 달성, 전국 최상위권의 전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축구 남자일반부 11인제에서는 60대부와 40대부가 결승에서 각각 1:5, 2:4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해 중·장년층 생활체육의 저력을 보여줬다. 풋살에서는 남자 15세 이하부와 여자 일반부가 우승을 달성, 세대별 균형 있는 경쟁력을 보여주며 2년 연속 종합우승에 올랐다.

롤러스포츠 종목에서는 김재은(부산 The Lap), 임세연(부산 슈퍼비클럽) 등의 활약으로 162점을 획득하며 지난해에 이어 종합 3위에 올랐다. 육상, 에어로빅합합, 수중핀수영, 태권도 종목에서도 종합 3위를 기록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대회 마지막날인 26일 열린 폐회식에서는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부산광역시가 경상남도로부터 대회를 이양받으며 '2027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부산 개최를 공식화했다. 부산은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와 도시 역량을 바탕으로 '스포츠 천국도시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대회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은 "스포츠 동호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참여 중심의 내실 있는 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의 가치를 한층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오는 5월 21일 오전 11시 농심호텔에서 부산선수단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여 참가 선수단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합시상

구분	1위	2위	3위
경기력상	경기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성취상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질서상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경기운영상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보디빌딩협회
특별상	경상남도 / 대한스쿼시연맹, 대한검도회		

부산선수단 종목별 종합입상

2026년도 순위 / 종목

1위(1) 당구

2위(3) 국학기공, 체조, 축구

3위(5) 롤러, 육상, 에어로빅합합, 수중핀수영, 태권도

2025년도 순위 / 종목

1위(1) 체조

2위(4) 국학기공, 에어로빅합합, 육상, 축구

3위(5) 그라운드골프, 롤러, 사이클, 수중핀수영, 철인3종



러닝 앱의 시대, 달리기의 방식을 바꾸다



지금은, 러닝 공화국!

지금 우리는 '러닝 공화국'이라 불려도 어색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이른 아침 출근 전 가볍게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직장인, 퇴근 후 도심의 야경을 따라 달리는 러너들, 주말이면 공원을 가득 메운 달리기 인파까지. 이제 달리기는 특정한 사람들의 취미가 아니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에는 '운동을 한다'는 표현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오늘 몇 킬로 달렸다'는 말이 훨씬 자연스럽게 들린다. 달리기가 더 이상 특별한 결심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일상 속 흔한 루틴이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으로도 확인된다. 마라톤 대회는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는 경우가 흔해졌고,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러닝 크루를 모집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SNS에는 자신의 러닝 기록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넘쳐나며, 달리기를 통해 성취감을 표현하는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러닝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

러닝 열풍, 왜 이렇게 커졌을까

운동에도 유행이 있다. 경보, 골프 등이 한때 그 시대를 대표했던 것처럼, 몇 년 전에는 너도나도 등산을 취미로 꼽으며 전국 산 정상에서 SNS용 인증사진을 남기는 게 유행이었다. 지금은 러닝이 그 중심에 있다.

러닝 열풍은 왜 이토록 빠르게 확산되었을까.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다. 코로나를 겪으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야외 활동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러닝이었다. 별도의 장비나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운동화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러닝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후 러닝은 단순한 대안 운동을 넘어 하나의 트렌드로 발전했다. 방송 프로그램과 미디어를 통해 마라톤과 러닝이 소개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더욱 확대되었고, 실제로 러닝 참여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

참고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5 국민생활체육조사」, 나이키 코리아 Nike Run Club APP, 아디다스 러닝(adidas Running) APP, 슈퍼워크 SuperWalk APP



세를 보였다.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주 1회 이상, 30분 이상 조깅에 참여한 인구는 약 3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러닝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활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닝 앱, 달리기를 설계하다

이러한 러닝 열풍의 중심에는 ‘러닝 앱’이라는 중요한 변화가 존재한다. 과거에는 달리기를 시작하려면 개인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기록을 관리해야 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러닝 앱은 이러한 과정을 바꿔놓았다. 이제 사용자는 앱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운동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다. 거리, 시간, 페이스, 소모 칼로리 등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심박수나 운동 패턴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특히 러닝 앱의 가장 큰 변화는 ‘개인 맞춤형 경험’에 있다. 사용자는 자신의 운동 기록을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조절한다. 러닝 앱이 단순한 기록 도구를 넘어 개인 트레이너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보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걷기와 달리기를 번갈아 구성하여 부담을 줄이고, 달리기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려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러닝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 음성 코칭 기반의 러닝 앱 ‘런데이’를 들 수 있다. 이 앱은 사용자의 운동 상태에 맞춰 “이제 천천히 달려보세요”, “속도를 조금 유지해볼까요”와 같은 실시간 안내를 제공한다. 이러한 가이드는 사용자가 혼자 운동을 하더라도 마치 코치와 함께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여 운동 지속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초보자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러닝을 하나의 즐거운 경험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



RUNNING APP



한편, 최근에는 러닝을 ‘재미’와 ‘보상’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프로그래머의 웹3 M2E(Move To Earn) 서비스 ‘슈퍼워크’다. 슈퍼워크 앱은 최근 러너들을 위한 ‘러너 모드’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러닝을 마치면 달린 거리, 걸음 수, 시간, 평균 속도, 칼로리 등 운동 데이터를 분석해 일정한 보상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한 건강 관리 차원을 넘어,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달리기를 통해 얻는 성취감에 더해 실질적인 리워드까지 더해지면, 러닝이 하나의 ‘참여형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다.

커뮤니티 플랫폼의 형태

러닝 앱의 또 다른 핵심은 ‘공유와 연결’이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기록을 SNS와 연동해 공개하고, 다른 러너들과 비교해보고 응원받는다. 앱 내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챌린지에 참여하기도 한다. 혼자 시작한 달리기가 결국 연결된 경험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이에 관한 예로 ‘나이키 런 클럽(NRC)’ 앱이 있다. 세계적 글로벌 브랜드 나이키의 나이키 런 클럽(NRC) 앱은 전문적인 코칭 콘텐츠와 러닝 기록 관리에 강점을 보이며, 자신의 기록을 측정하고 친구에게 기록을 공유하며 함께하는 러닝 문화를 만들

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국내에 정식 출시된 아디다스의 ‘아디다스 러닝(adidas Running)’ 앱은 러닝뿐 아니라 걷기, 사이클링 등 다양한 운동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보다 확장된 피트니스 경험을 제공한다.

결국 러닝 앱은 단순한 ‘기록 도구’를 넘어, 코치이자 동기부여 장치이며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이는 지금의 러닝 열풍을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달리기를 더 똑똑하게

이제 러닝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깊이 맞닿아 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러닝 크루가 형성되고, 다양한 형태의 러닝 문화가 만들어진 현재의 모습은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지금 달리는 시대를 넘어, 더 효율적으로 기록하고, 더 즐겁게 공유하는 스마트 러닝의 시대에 살고 있다. 러닝 앱은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핵심 요소이며, 앞으로도 달리기 방식은 기술과 함께 더욱 진화해 나갈 것이다.

‘계절의 여왕’이 가진 두 얼굴

5월에 조심해야 할 질환과 예방법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매력적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시기이기도 하다.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균형을 흔들며 여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건강한 5월을 보내기 위한 유의 사항을 알아보자.

체온을 지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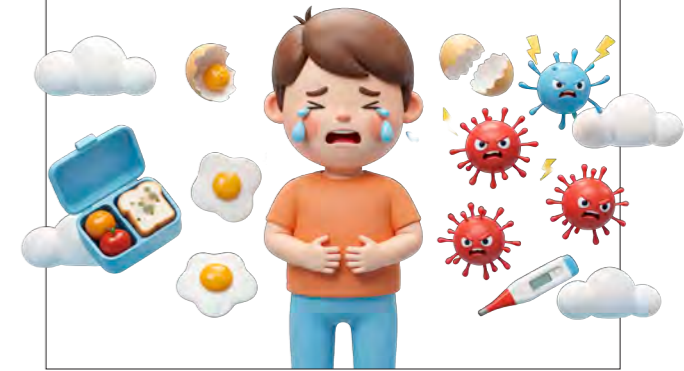
20도를 웃도는 낮 기온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외출했다가는 저녁쯤 뚝 떨어진 기온에 낭패를 볼 수 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체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해 혈액 순환이 잘되지 않고, 면역 세포인 백혈구가 이동하는 데 방해가 받아 면역력까지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체 적응력이 약해지면서 감기, 폐렴 등 감염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환절기 불청객인 감염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체온 유지이다. 외출 시 겉옷을 챙겨 저녁 날씨를 대비하자. 다음은 손 씻기의 생활화이다.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손을 통해 체내로 침투되는 만큼, 가장 핵심적인 예방책이다. 또한 건조한 날씨로 인해 호흡기 점막의 이물질 자정 능력이 떨어지므로,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활용하여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하는 것이 바이러스 침투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

식중독을 주의하자

‘가정의 달’ 5월, 따뜻해진 날씨에 많은 이들이 나들이를 계획한다. 하지만 5월 14일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정한 ‘식품안전의 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5월, 도시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우려하며 식음료 준비 및 보관, 섭취 과정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낮 기온 상승에 따라 세균 증식이 활발해지는데, 장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음식을 방치할 경우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준비, 보관 및 운반, 섭취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준비 단계에서는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기억하자. 보관 및 운반 시에는 높은 온도를 피하고 아이스박스를 활용해야 한다. 실온이나 자동차 트렁크 내 방치된 식품은 과감히 버려야 하며,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무리한 야외 활동은 삼가자

5월은 등산하기 딱 좋은 시기다. 다만 이때 무리한 야외 활동은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환절기 급격한 날씨 변화로 일교차가 커지면 혈관이 급격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 또한 찬 공기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오한을 일으켜 열을 생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혈압과 심박수를 상승시켜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은 절대 금물이다. 야외 활동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야 하며,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또한 심장에 무리가 가는 운동보다는 평소 일정한 활동량을 유지해 신체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과음과 흡연도 자제해야 한다. 유의 사항을 잘 숙지하여 생명력 가득한 계절을 건강하게 만끽해 보자.



일교차 큰 5월,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외출 시 겉옷은 필수
- 손 씻기 생활화
- 실내 습도 40~60%로 유지
- 음식은 조리 후 2시간 이내 섭취
- 무리한 활동 X, 규칙적인 운동 O

자료 출처: 동강병원, 유유제약 블로그,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성저널, 서울아산병원, 하이닥뉴스

파도 위에 그리는 연대기

대한민국

해양스포츠의 심장, 부산

부산은 대한민국 해양스포츠의 종가이자 미래다. 7개의 공설 해수욕장, 천혜의 해안선을 가진 부산의 바다는 우리 민족이 파도와 바람을 정복해온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부산 해양스포츠의 태동부터 글로벌 메카로 도약하기까지, 부산의 바다와 스포츠 역사를 짚어본다.



자료 출처: 『부산체육』(2020), 부산역사문화대전

1970년대 이전: 생활 터전에서 피어난 스포츠의 씨앗

1970년대 이전, 부산의 바다는 유희의 공간이 아닌 부산 시민의 생활 터전이었다. 갯벌과 근해 조업을 통해 삶을 일구어 나가는 시민들의 모습, 그것이 당시의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수영과 보트 기술은 지역 사회의 중요한 문화 요소였다.

1913년 개장한 대한민국 최초의 공설 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은 부산 해양문화의 기점이다. 수영대회와 소형 선박 경주가 열리며 ‘물놀이’가 ‘스포츠’화하는 기초가 마련됐다. 낙동강 하구와 수영강 인근에는 전통적인 나룻배 경주가 열리기도 했는데, 이는 훗날 조정과 카누 등 근대 해양스포츠가 자리 잡는 밑거름이 되었다.

1970-1980: 경제 성장과 국제 대회로 일군 황금빛 인프라

1970년대 후반, 한국 경제가 성장기에 접어들며 ‘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일기 시작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항구도시로서 해양 산업과 스포츠가 발전하기 적합했다. 1970년대에 수영만 일대를 중심으로 요트 동호인들이 활동을 시작했고 1979년 대한요트협회의 창립과 함께 부산은 요트 훈련의 최적지로 각광 받았다.

1980년대에는 미군 부대의 군인들과 유학파 청년들을 통해서 서핑보드가 한국에 전해졌다. 해운대와 송정은 서핑의 성지로 불리며 당시 독특한 청년문화 형성에 기여했다. 해운대에서의 서핑 열풍이 잦아든 뒤에도 송정은 서핑의 중심지로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1980년대에는 ‘1986 아시안게임’과 ‘1988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시기로 부산 해양스포츠 역사상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였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완공되면서 부산은 해양스포츠 인



프라를 갖춘 세계적 도시로 이름을 알렸고 이때 갖춰진 인프라는 오늘날까지 부산 해양스포츠의 핵심으로 기능하고 있다.

1990-2000: 대중화의 물결, 시민의 일상으로 들어온 바다

국제 대회 개최 이후, 해양스포츠는 소수 전문가와 마니아들의 전유물에서 일반 시민의 취미 영역으로 확장됐다. 1990년대 지방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려 국제 요트대회를 유치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국제 행사들은 국내 요트 산업의 발전과 해양스포츠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해양레포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요트 강습 학원과 동호회도 생겨나며 관련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 특히 청소년들이 부산의 해양스포츠에 참여하게 되면서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도 활성화되었다. 2000년대 들어 부산은 ‘해양레저 특구’ 지정을 추진하며 스포츠를 관광 산업과 결합하기 시작했고 해운대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즐기는 요트 투어는 부산의 시그니처 관광상품이 됐다. 이 시기 부산의 바다는 더 이상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체험형 공간’으로 완벽히 탈바꿈했다. 특히 주 5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과 국민 소득 증대는 해양레저를 향한 진입장벽을 낮



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발맞춰 부산시는 해양스포츠를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도시 브랜딩의 핵심 동력으로 삼았다. 해변의 마천루와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독보적 경관은 도시의 세련된 이미지를 부여했고 나아가 부산이 ‘아시아의 리비에라’로 불리며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경쟁력이 되었다.

2010-현재: 글로벌 해양 리더의 완성

해양수산부의 2019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해양산업 관련 사업체는 27,000여 개. 종사자는 150,000여 명에 달했다. 해당 자료에서 알 수 있듯 부산은 해양수도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동시에 전통적인 해양스포츠 산업을 넘어 첨단 기술과 환경 가치를 결합하는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2010년대 부산 해양스포츠를 이끌었던 양대 축으로는 부산 해양스포츠아카데미와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있다.

부산해양스포츠아카데미는 부산광역시가 ‘해양레포츠 허브 도시’ 구축을 목표로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운영한 것으로 4~10월 사이 개최된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이 핵심 사업이었다. 부산광역시요트협회의 요트학교와 각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조정, 레프팅, 카누, 카약, 딩기요트, 윈드서핑, 수상스키, 카이트 보딩 등 대표적 해양스포츠 종목에 대한 교육과 체험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는 2012년 설립 당시부터 해양스포츠를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석해왔다. ‘한국 레저스포츠 발

전을 선도함은 물론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해양레포츠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목표로 하며 국제보트쇼와 국제해양레저워크 등을 진행해왔다. 2020년 대,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빙풀 등 수중레저를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되었다. 국제해양레저워크 기간 동안 부산국제보트쇼와 테마워크 등을 통해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와 친수문화 확산을 도모했으며 해양레저 체험, 컨퍼런스 등도 추진했다. 해양스포츠의 메카라는 이름에 걸맞게 부산은 기반시설을 조성해왔다.

새로운 100년: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푸른 항해

부산의 해양스포츠 역사는 단순한 ‘유희’의 기록이 아니다. 어려운 시절 고난을 극복하고자 한 부산 시민들의 개척 정신이었고 바다라는 자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범시민적 고민이었다. 세계 5대 해양스포츠 도시를 목표로 하는 지금, 부산이 그리는 미래 지도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확장이 아니다. 앞으로 부산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해양레저 문화를 선도하고 스마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누구나 안전하게 해양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해양레저 문화를 구축하고 누구나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양수도’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새로운 100년 역사의 시작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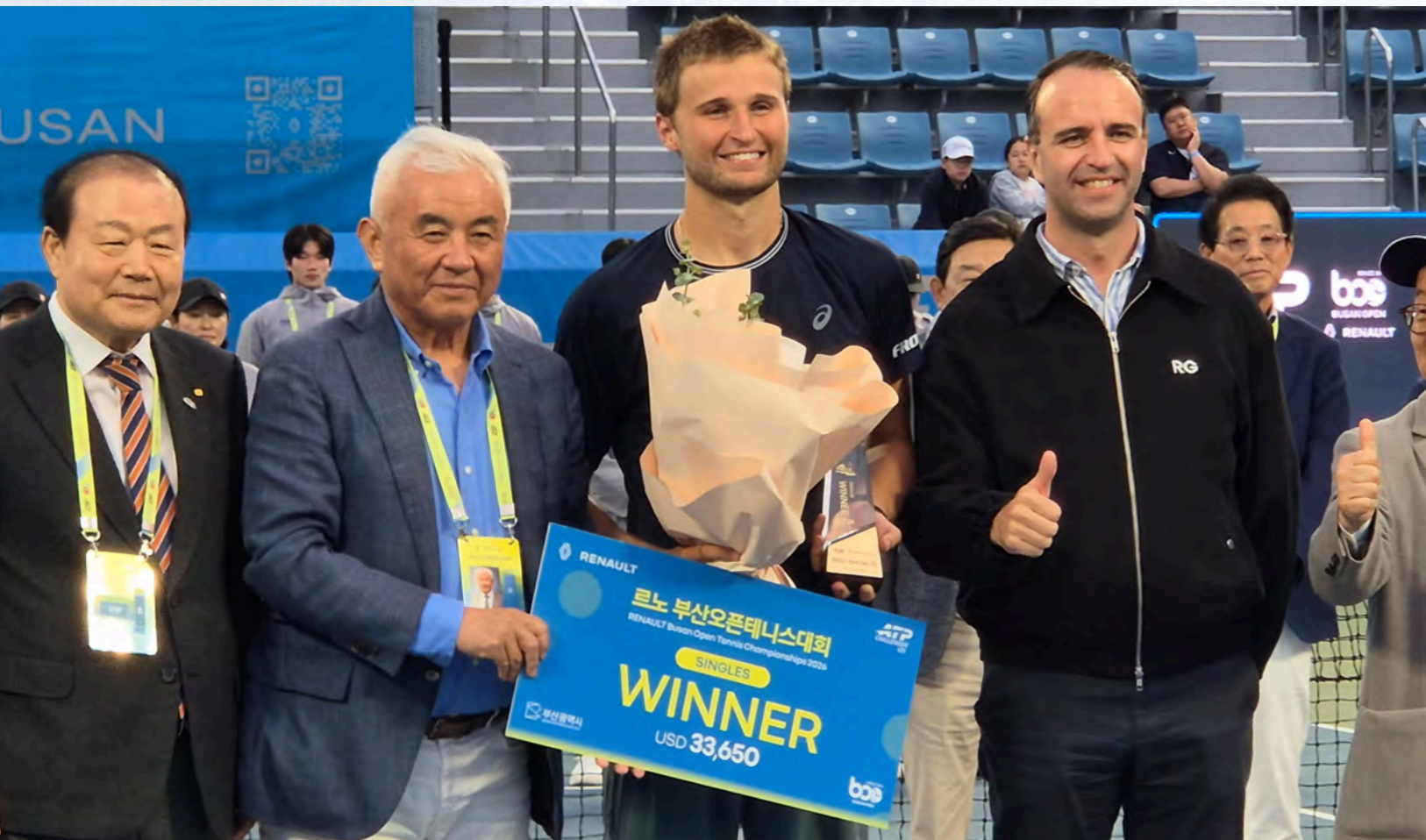
세계적인 서브와 랠리의 향연, 부산의 봄을 깨우다

2026 부산오픈

국제남자챌린저 테니스대회

제6기 부산스포츠기자단

신윤서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완연한 봄기운이 찾아온 부산,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타구음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전 세계 테니스 유망주들과 베테랑들이 한자리에 모여 뜨거운 기량을 겨룬 부산 스포원파크 현장을 다녀왔다.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8일간 부산 스포원파크 테니스 경기장에서 ‘2026 부산오픈 국제남자챌린저 테니스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세계남자프로테니스협회(ATP)와 대한테니스협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가 주관했으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부산오픈은 국내에서 개최하는 세계남자챌린저 테니스대회 중에서도 최상위급에 속하는 챌린저 125급 대회로, 총상금 22만 5천 달러 규모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대회가 ATP 챌린저 투어의 핵심 일환이었던 만큼, 세계 랭킹 포인트 확보를 위해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80여 명의 수준급 프로 선수들이 참가해 자웅을 겨뤘다.

대회 첫날인 12일 오전에 시작된 예선전은 본선 진출을 향한 선수들의 투혼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내리쬐는 햇빛이 다소 덥게 느껴지는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코트 위에서는 단 한 포인트라도 더 따내기 위한 끈질긴 랠리가 이어졌으며, 관중들은 선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 하나하나에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특히 한국 테니스의 간판 권순우 선수를 비롯해 일리아 이바슈카, 레안드로 리에디 등 세계적인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며 대회의 격과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경기가 거듭될수록 현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14일 본격적으로 진행된 본선 라운드에서는 상위 시드 선수들과 패기 넘치는 신예들의 맞대결이 펼쳐지며 수많은 이변과 감동의 순간들이 연출되었다. 19일 진행된 대망의 단식 결승전에서는 스위스의 레안드로 리에디(Leandro Riedi) 선수가 중국의 부윤차오케테(Yunchaokete Bu) 선수를 세트 스코어

2 대 1로 꺾으며 최종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매치 포인트를 결정지은 마지막 장면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네트 플레이의 정수를 보여줬다. 리에디가 절묘한 드롭 샷으로 상대의 전진을 강요하자, 코트 앞까지 달려 나온 두 선수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짧고 빠른 발리 공방전을 펼쳤다.

숨 가쁘게 이어지던 랠리 끝에 수세에 몰린 상대의 리턴이 아쉽게 네트에 걸리며, 리에디의 부산오픈 우승이 확정되었다. 두 선수의 팽팽한 네트 대결은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고, 우승이 확정된 순간 리에디는 승리의 환호를 내질렀다.

복식 경기 역시 단식만큼이나 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손에 땀을 쥐게 했다. 복식 결승전에서는 인도와 일본의 연합팀인 아니루드 찬드라세카르-유즈키 다케루 조가 네덜란드와 미국의 장 줄리앙 로저-시어도어 위네가 조를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끈끈한 팀워크와 번뜩이는 네트 플레이가 돋보인 복식 경기는 테니스가 가진 또 다른 전략적인 매력을 선사하며 대회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번 ‘2026 부산오픈 국제남자챌린저 테니스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부산 시민들이 테니스의 역동적인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었다. 8일간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한 가운데, 코트 위에 남겨진 선수들의 뜨거운 땀방울과 송고한 스포츠 정신은 부산 시민들의 가슴 속에 깊은 여운으로 남을 것이다. 부산이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도약해나가는 길목에서, 앞으로도 부산오픈이 보여줄 테니스의 열정과 무한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뜨거웠던 겨울의 마침표,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제6기 부산스포츠기자단

이승빈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선수단의 노고를 돌아보고 성과를 나누는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이 열렸다. 대회 기간 내내 이어졌던 치열한 경쟁을 뒤로 하고 한자리에 모인 선수단과 관계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지난 4월 2일 부산광역시체육회관 회의실에서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시민과 체육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

행사는 개회식, 국민의례, 내빈소개, 성적보고, 유공자 시상, 인사말씀, 기념촬영, 폐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유공자 시상에서는 종목별 우수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되어 그간의 노고를 기리는 축하와 존경의 박수가 이어졌다. 시상식의 마지막을 장식한 MVP상은 금메달 4개를 획득한 크로스컨트리 여자 초등부 오신비 선수와 여자 일반부 이의진 선수에게 돌아갔다. 두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기량과 꾸준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부산선수단의 성과에 크게 기여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의 위상을 드높인 선수단과 참석 내빈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인화 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단이 19년 연속 종합 5위라는 성과를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계스포츠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보여준 불굴의 투혼은 부산 시민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뎌낸 선수 여러분의 노력이 하나로 모여 값진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앞으로도 각자가 가진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더 큰 무대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함께 기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뜻깊은 분위기 속에서 성



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부산선수단은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산악 등 다양한 종목에 참가해 고른 활약을 펼쳤다. 각 종목에서 선수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경기력을 선보이며 부산체육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부산선수단은 종합 5위(524점)를 기록하며 19년 연속 상위권 성적을 이어갔고, 총 36개의 메달(금 10, 은 12, 동 14)을 획득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과 꾸준한 성장세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로 평가된다.

종목별 활약도 돋보였다. 쇼트트랙에서는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스노보드에서는 은메달 2개를 추가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크로스컨트리에서는 금메달 9개, 은메달 7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며 이번 대회의 핵심 종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값진 성과 뒤에는 선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훈련과 준비 과정이 결실을 맺으며, 부산선수단은 다시 한번 도전과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부산체육이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어가길 기대해 본다.

거침없는 질주, 섬광처럼 달려라

롤러스포츠



어느 괴짜가 신발 밑에 바퀴를 붙였더니, 빙상이 아닌 곳에서도 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 되었다. 유쾌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롤러스케이트. 단순한 오락거리였던 이 스포츠는 현재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스포츠가 되었다. 초속을 겨루는 스피드 경주부터, 우아함을 보여주는 아티스틱까지. 롤러스포츠가 안겨주는 역동성의 세계로 지금 초대한다.



자료 출처: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부산광역시롤러스포츠연맹

롤러스포츠의 역사

롤러스포츠의 기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1700년 초, 여름에도 아이스 스케이팅을 즐기고 싶었던 네덜란드의 한스 브린크너(Hans Brinkner)가 발명했다는 설이 가장 보편적이다. 이후 1863년 미국의 제임스 레오나드 프림톤(James Leonard Plimton)이 '쿼드 롤러스케이트'를, 1980년 올슨 형제가 '인라인스케이트'를 현대적 형태로 제작했다.

20세기 초, 롤러스포츠는 높은 인기를 구가하며 스피드, 하키, 아티스틱 등 다양한 종목이 생겨났다. 그리고 1924년 유럽선수권대회 개최를 기점으로 비유럽 국가들에게도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롤러스포츠는 월드컵* 종목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게 된다.

* 월드컵: 올림픽에 채택되지 않은 종목들로 이루어진 세계 대회

한국의 롤러스포츠 역사

우리나라는 1937년 롤러스케이트장이 건설되며 처음 롤러가 보급되었는데, 당시에는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다. 이후 1972년 롤러스케이트에 뜻이 있는 인사들이 모여 '경북롤러스케이팅협회'를 조직, 1973년 '대한롤러스케이팅협회'로 개칭하였다. 협회는 해당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롤러스케이팅연맹'에 가입, 친선경기 개최, 롤러스케이팅교실 운영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1980년 롤러스케이팅이 유기종목으로 지정되며 침체기를 맞는다.

2001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로울러'라는 표현은 '롤러'로 변경되고, 협회의 명칭도 '대한롤러경기연맹'으로 개칭됐다. 이 무렵 인터넷을 매개로 한 인라인 동호회 활동이 증가하면서 인라인스케이트 열풍이 불게 된다. 반면 쿼드는 엘리트 대회가 사라지는 등 인라인에 인기가 밀리



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인라인의 인기도 예전에 비해 다소 사그라들긴 했지만, 생활체육인이 꾸준히 인라인을 즐기고 있고 엘리트 선수들의 활약 또한 이어지고 있다.

롤러스포츠 장비의 종류

'롤러'에는 두 종류의 신발이 있다. 신발에 달린 바퀴를 기준으로 4개의 바퀴가 중앙에 1열로 배열되어 있다면 '인라인스케이트', 2개씩 2열로 배열되어 있다면 '쿼드 롤러스케이트'라고 한다.

신발 외에도 '롤러용'으로 분류되는 장비가 있는데, 바로 '스케이트보드'다. 이는 길이, 용도에 따라 분류 가능한데 길이 28~32인치(71.12cm~81.28cm)가 표준이며 기술 트릭 용과 주행용으로 나뉜다.



1. 스피드 스피드 경기는 경기 방식, 경기 주로에 따라 종목이 달라진다. 경기 주로는 트랙과 로드로 나뉜다. 트랙은 길이 200m의 경기 코스이며, 로드는 길이 400m 이상, 600m 이하의 경기 코스다. 경기 방식은 다음과 같다.

듀얼 타임트라이얼(DTT) 200m

- 2명씩 한 조로 편성하여 경기한다.
- 조별 대진표상의 앞 선수가 출발선/결승선 쪽에서 출발하고, 다른 선수는 그 반대편에서 출발한다.

스프린트 500m+D

- 주로의 두 바퀴 반에서 직선주로 가운데까지의 거리가 추가되어, 직선주로 한가운데가 출발선이다.

스프린트 1,000m

- 최대 3번의 라운드로 진행되며, 토너먼트 방식으로 운영한다.
- 각 라운드의 조 편성 인원은 최대 8명으로 하며, 전체 참가인원이 8명인 경우 예선전 없이 바로 결승전을 실시한다.

제외 경기

- 출전선수 인원에 상관없이 바로 결승전을 실시한다.
- 제외 바퀴 시작 전, 제외를 알리는 종을 치고 그다음 바퀴에서 가장 후미에 있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를 제외하는 방식이다. 마지막 제외 이후에는 1, 2, 3위를 가리기 위해 3명의 선수를 남겨둔다.

포인트 경기

- 포인트 바퀴에서 각각의 선수에게 점수를 준다. 마지막 바퀴에서는 더 큰 포인트를 획득한다.
- 포인트 바퀴에서 결승을 통과한 1, 2위 선수에게 각각 2, 1점을 주며, 마지막 바퀴 1, 2, 3위는 각각 3, 2, 1점을 획득한다.

제외+포인트 경기

- 제외 경기와 포인트 경기를 합친 방식으로 운영한다. 바로 결승전을 실시한다.
- 종을 쳐서 들어오는 바퀴에 1, 2위에 2, 1점을 주며, 그다음 바퀴에 가장 후미의 선수를 제외한다. 마지막 바퀴의 1, 2, 3위에게는 3, 2, 1점을 준다.

계주 경기

팀 경기로, 한 팀당 3명으로 구성한다. 경기 코스에 표시된 교대 구간에서 한 명씩 번갈아 교대하면서 경기를 운영한다.

팀 듀얼 타임트라이얼(TDTT) 2,000m

듀얼 타임트라이얼과 추월 경기를 혼합한 방식이다.

스프린트 100m(로드)

선수는 자기 레인에서 스키어링해야 한다. 코스 길이가 가장 짧은 종목으로, 레인 구분선에 닿은 선수는 실격 처리된다.

마라톤 42.195km

마라톤 경기의 세부 사항은 참가 요강에 따라 운영, 그 외는 월드 스키이트 스피드기술위원회의 일반 규정을 적용한다.

2.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는 195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서퍼들이 파도가 없는 날에도 서핑을 즐기기 위해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대한롤러스포츠연맹에 스케이트보드 종목이 편입됐고, 같은 해 IOC 총회를 통해 올림픽 정식 종목에 포함되었다.

스트리트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경기장에 설치된 장애물(계단, 난간, 경사면 레일 등)을 이용한 고난이도 트릭을 구사하는 종목이다.

파크

보울이라고 부르는 움푹하게 파인 경기장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점프, 그라운드, 그랩, 스핀 등의 기술을 연기를 펼치는 종목이다.

버트

U자 모양의 하프파이프 경기장에서 빠른 스피드와 화려한 에어 기술을 선보이는 종목이다.

ROLLERSPORTS

ROLLERSPORTS

3. 인라인하키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진행되는 하키. 스틱을 사용해 도넛 모양 퍽을 골케이지에 넣는 스포츠다.

- 최대 14명의 플로어 선수와 2명의 골키퍼로 팀을 꾸릴 수 있다.
- 정식 경기는 두 피리어드*로 나뉘어서 20분간 진행되며, 양 팀이 엔드**를 바꾸는 하프타임에 5분 휴식을 가진다.

*피리어드: 경기 시간의 단위, 총 20분 **엔드: 경기장의 양 끝, 골대가 위치한 구역

4. 인라인 프리스타일 인라인을 신고 콘을 통과하며 다양한 기술을 선보인다. 가장 대표적으로 ‘원 풋’* 기술이 있다.

*원 풋: 슬라럼 콘 사이를 한 발로 지그재그를 그리며 지나가는 기술

클래식 프리스타일 슬라럼

음악에 맞추어 일정한 콘 사이를 이동하며 연기하는 종목이다.

스피드 슬라럼

80cm 간격의 20개의 콘을 ‘원 풋’ 기술로 속도를 경쟁하는 경기이다.

페어 슬라럼

클래식 프리스타일 슬라럼과 동일한 경기장에서 치러지며, 2명이 함께 연기하게 된다.

배틀 슬라럼

4명이 한 조가 되어 기술을 겨루는 경기이다.

슬라이드

정지 기술을 이용하여 기술의 난이도와 자세, 거리를 채점하는 경기이다.

프리점프

인라인을 신고 장대를 뛰어넘는 것으로 겨룬다. 높이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5. 아티스틱 스케이트를 신고 점프, 스핀 등 안무를 펼치는 종목. 롤러스포츠 세부종목 중 가장 예술성이 돋보이는 종목이다.

피겨

바닥에 그려진 원을 따라 정해진 과제를 수행하는 종목이다.

프리

음악에 맞추어 자유롭게 연기하며 과제를 수행하는 종목이다.

페어

남녀가 같이 음악에 맞춰 수행과제를 넣어 자유롭게 연기하는 종목이다.

솔로 댄스

정해진 댄스 요소를 음악에 맞춰 정확하게 연기하는 종목이다.

커플 댄스

남녀가 같이 정해진 댄스 요소를 음악에 맞춰 정확하게 연기하는 종목이다.

쇼

4인 이상의 단체가 프리 종목 요소를 넣어 음악에 맞춰 연기하는 종목이다.

인라인

인라인을 신고 음악에 맞춰 수행과제를 자유롭게 연기하는 종목이다. 쿼드와 달리 프리 종목만 있다.

몸을 그리는 세 가지 방법

전시
 <소장품섬 - 몸의 증언>

한 남자가 덩치 큰 사자 앞에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공포에 질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시 달아나야겠지만, 얼어붙은 다리는 좀체 움직이지 않는다.

이처럼 몸의 신호는 쉽게 통제할 수 없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몸을 단순한 표현 수단으로 보지만 이곳에 모인 세 예술가의 시선은 다르다. 그들은 경험이 지나간 뒤에도 감각과 흔적이 남는 자리로 몸을 바라본다. 각기 다른 시선으로 조명하는 세 예술가의 '몸'. 그 흔적을 따라가 보자.

나쁜 몸의 기억

Parallel Bodies: Three Modalities

being across the terrain where disappearance and emergence intersect. The pulse of the earth where the body has vanished invites viewers to witness a sublime transition in which finite life is a part of the eternal cycles of nature.

The exhibition, which operates through the body of the viewer, ultimately completed through the body of the viewer before Kim's breathing, and the healing attention before Mendieta's absence do not immediately return to their previous state, leaving the gallery. The body carries these memories and those memories endure in the form of the viewer's experience. What is the condition of my body? What does my viewing entail? And how am I to experience forward? Beyond confronting bodies that will one day reach future otherworldly resolutions, remaining an act of testimony that extends beyond the body of the present toward the future.

자료 출처 및 사진 제공: 부산현대미술관



크리스 버든: 상처

그는 스스로 상처 입힌 몸을 가감 없이 관람자들에게 드러냈다. <발사>에서는 총에 맞은 버든의 모습을, <침대 조각>에서는 병약하고 쇠약해진 그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때때로 누군가가 음식을 가져다주긴 하지만, 소량에 불과하다. 이 두 모습은 끔찍하기 짝이 없지만, 미술관에 '전시'되었다는 이유로 '예술'이 된다. 버든이 보여주는 몸은 환경에 가장 취약한 존재이다. 그를 겨냥한 총, 정해진 시간에만 제공되는 음식,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람자의 눈까지. 버든을 둘러싼 주변 환경 속에서, 그는 저항할 수 없다.

전시명: 소장품섬 - 몸의 증언
 기간: 2026.3.21.(토)~7.19.(일)
 장소: 부산현대미술관

김순기: 호흡

김순기의 영상은 충격적인 사건보다는 반복적인 일상에 집중한다. <바카레스 호수>는 잔잔한 호수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호수의 미세한 파문과 느린 호흡이 중심이 된다. 몸의 호흡은 김순기의 작품 세계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다. 호흡을 따라가는 것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고, 호흡으로 자연의 리듬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작가는 느린 호흡 아래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거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생기는 변화를 기록한다. <준비된 피아노>는 정원 한가운데 피아노를 놓은 뒤, 사계절 내내 연주하다가 불태워버린다. 영상은 피아노에서 불꽃으로 변화하는 피아노를 보며,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권유한다.



아나 멘디에타: 흔적

아나 멘디에타에게 사건은 나타났다가 지워지는 것이다. 대표작 <무제: 실루에타 연작>에서는 흙 위에 잎과 안료를 올려 사람의 흔적을 남겼다. 이 흔적들은 곧 사라질 것이다. 멘디에타의 작품들은 자연이 개입해 흔적을 지워버린다. 그렇기에 멘디에타의 작품 속에는 '몸'이 보이지 않는다. <무제: 실루에타 연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작가는 사건을 '추리'하길 바라지 않는다. 그는 몸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을지를 읽어내길 바란다. 관람객들은 사라진 몸의 부재가 주는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2026 부산 해양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부산 해양레저 성장동력 창출, 마리나 활성화 전략 제안

지난 4월 29일, 부산일보·부산MBC·부산광역시중구·부산광역시체육회·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계기로 부산 지역 마리나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6 부산 해양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의 ‘글로벌 해양수도’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마리나 산업의 실태를 집중 조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통한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재형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부산은 전통 해양산업 중심의 성장 구조 속에서 인구 감소와 성장 둔화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의 강점인 해양레저관광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에서는 부산 마리나 산업이 동부산 중심의 제한적 구조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며 북항·영도·사하·강서·낙동강까지 확장된 권역별 복합 마리나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

서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이 도출됐다.

먼저 북항 마리나는 계류시설 복구 지연과 상업시설 활성화 부진,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미착공 등으로 북항 재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요트경기장은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계류선박의 임시 대체시설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남천 마리나는 법적 분쟁 장기화로 운영 효율이 저하된 데다 수요에 비해 마리나 시설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대 마리나는 반복되는 재해와 지역 주민 및 관할 구청 간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대포 마리나 역시 주변 개발 여건의 미성숙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을숙도·삼락·화명 등 낙동강 권역 내수면 마리나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요트·모터보트·유람선·도선 등 해양레저선박의 면허 및 관리체계가 분산돼 있고, 검사 기

준도 이원화돼 이용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양레저 산업과 관련된 업무가 부산시 내 여러 부서로 나뉘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이에 이재형 교수는 해운대·남천·다대포 등 14개소에 대해 정부 계획과 연계하여 실행 가능한 마리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소규모어항의 피셔리나(Fisherina)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항 마리나의 경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류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상업시설 활성화, 해양레포츠콤플렉스 건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천 마리나는 공공관리체계 전환을 계기로 시설 확충과 기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운대 마리나는 인접 방재시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동부산권 해양레저 거점으로 육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을숙도·삼락·화명 마리나는 수변문화와 연계해 마리나 복합시설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해양레저선박의 면허체계를

통합하고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야 하며, 해양레저 산업 전담 컨트롤타워와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마리나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마리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리나 시설 확충에 공감하면서, 항만별 차별화 전략(Porter)과 가치 혁신(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부산만의 차별화된 해양관광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논의로 그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시민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마리나 산업 활성화 방안을 해양수산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에 전달하고, 조속한 정책 반영과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이 해양레저 메카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육계도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7회 부산광역시시장기 시민게이트볼대회 개최

지난 4월 17일 삼락생태공원 게이트볼장에서 부산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7회 부산광역시시장기 시민게이트볼대회'가 개최됐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역 내 어르신 및 동호인들에게 생활체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치구 간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시민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16개 구·군 체육회 소속 46개 클럽 4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해 그동안 같고닮은 정교한 샷과 탄탄한 팀워크를 선보이며 생활체육의 활기찬 에너지를 발산했다.

개회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16개 구청장·군수 및 체육회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동호인들을 격려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을 '생활체육 천국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일상 곳곳에서 체육을 즐기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

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날 대회의 우승은 해운대구 1팀이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북구 수정팀이, 공동 3위는 남구 1조팀과 사상구 2조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선수상은 해운대구 송금수, 정미숙 선수가 수상했으며, 우수선수상은 북구 배병록, 안영숙 선수가 받았다. 또한 최고령참가자에게 시상되는 최고 어르신상은 남자부 1934년생(만 91세) 정은조 선수(금정구)와 여자부 1939년생(만 87세) 엄기유 선수(서구)가 수상하며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게이트볼은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과 정서적 활력을 채워주는 100세 시대 최고의 보약"이라며, "앞으로도 스포츠로 일상이 즐거운 부산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6 부산 체육 스포츠주간 행사 개최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공 개최 기원 및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기념

4월 30일 금정산 일원에서 부산 체육의 화합과 도약을 위한 '2026 부산 체육 스포츠주간 행사'가 개최됐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전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의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동시에 부산 체육계를 이끄는 주요 유관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협업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날 현장에는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체육 관련 부서를 비롯해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단체인 16개 구·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을 등반하고 친선 체육 경기

를 진행하며 부산 체육 발전과 더불어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차질 없는 개최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확인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행사는 부산 체육 유관기관이 원팀(One Team)으로서 결속력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밝히며, "도심형 국립공원 금정산의 기운을 받아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역대 최고의 대회로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앞으로도 스포츠 주간의 의미를 살려 시민 건강 증진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부산 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중구체육회

제37회 부산광역시시장기 시민게이트볼대회 참가

중구체육회는 4월 24일(금) 삼락생태공원 게이트볼장에서 개최된 '제37회 부산광역시시장기 시민게이트볼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대회에는 16개 구·군을 대표한 4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하였고, 중구에서는 총 3개 팀(21명)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대회는 참가자들의 열띤 분위기 속 부상자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서구체육회

부산광역시서구격투기협회 소속 박태훈 선수 챔피언십 우승

4월 11일(토)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인터내셔널 2026 키스포트페스티벌 KTK 챔피언십' 대회에서 부산광역시서구격투기협회 소속 박태훈 선수가 라이트 헤비급(-85kg)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개인의 노력과 함께 부산광역시서구격투기협회의 체계적인 지도·지원, 서구체육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반 조성이 더해진 성과로 평가된다. 서구체육회는 앞으로도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에 힘쓰고, 다양한 체육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체육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부산진구체육회

제29회 부산진구청장배 테니스대회 개최

부산진구체육회는 4월 4일(토) 부산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에서 '제29회 부산진구청장배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약 300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으며, 페어플레이 정신을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을 이어가며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냈다. 대회는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 안전사고 없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었으며, 부산진구체육회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대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동래구체육회

2026년 동래구체육회 임직원 단합대회 개최

4월 5일(일) 경북 청도에서 '2026년 동래구체육회 임직원 단합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조직 역량 제고와 원활한 소통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으며, 임직원들은 운문사와 운문댐 일대를 함께 걸으며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어 조직 내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동래구체육회는 앞으로도 조직 내 결속력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군체육회 소식

B U S A N S P O R T S C O U N C I L



동구체육회

2026 동구체육회 임원단합대회 개최

동구체육회가 4월 18일(토)부터 4월 20일(월)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2026 동구체육회 임원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단합대회는 체육회 임원 및 직원 간 유대 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됐으며, 체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나눌 수 있었다. 동구체육회는 앞으로도 동구의 체육 발전과 건강한 생활체육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영도구체육회

2026년 상반기 생활체육교실 운영

영도구체육회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4월 말 '2026년 상반기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시작했다. 수영, 필라테스, 스피닝, 스텝박스, 볼링 등 총 5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영도국민체육센터와 한바다볼링센터에서 종목별 15~2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지도와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영도구체육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 참여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남구체육회

제16회 남구족구협회장배 족구대회 개최

남구체육회는 4월 26일(일) 문현동 배수지 족구전용구장에서 남구 족구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제16회 남구족구협회장배 족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열띤 경기를 펼쳤고, 팀워크와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이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남구체육회는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체육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북구체육회

제69회 북구테니스협회장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 개최

북구체육회는 4월 19일(일) 화명생태공원 테니스장 외 4곳에서 '제69회 북구테니스협회장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 테니스 동호인들 간 실력을 겨루고 화합을 다지기 위한 생활체육 행사로, 북구 지역 테니스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회 결과 금배부에서는 아웃사이드가 우승, 워크맨드가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은배부에서는 매치포인트가 우승, 위아윈이 준우승에 올랐다. 동배부에서는 카이저A가 우승, 금강A가 준우승을 기록했다.



해운대구체육회

제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협회장기 족구대회 개최

해운대구체육회가 4월 5일(일) 수영강 원동 족구전용구장에서 '제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협회장기 족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해운대구체육회 박영곤 회장을 비롯해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으며, 239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날 치열한 경기 끝에 부산 J5부는 재미사마 형호팀, 부산 J6부는 제니스A, 해족협 관내1부는 송주A팀, 해족협 관내2부는 해일 강동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사하구체육회

사하구축구협회 '제45회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 축구대회' 장년부 우승

사하구축구협회 소속 40대 동호인 팀이 4월 4일(토)과 4월 5일(일) 양산시 일원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 축구대회' 장년부에 부산 대표로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결승전에서는 서울시 대표팀을 상대로 경기 내내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며 3대0 완승을 거뒀다. 이번 우승은 부산 지역 생활체육 축구의 경쟁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동호인 축구 저변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연제구체육회

제19회 연제구협회장기 탁구대회 개최

연제구체육회가 지난 4월 5일(일)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에서 '제19회 연제구협회장기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탁구협회 동호인 45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경기 결과 남자단체A에서는 비기스트, 오타쿠, 스페셜핍팅B가 공동 우승을 차지했으며, 남자단체B에서는 비기스트A, 스페셜핍팅A, 오타쿠B, 스페셜핍팅B가 공동우승을 기록했다. 여자단체는 김킴, 액티브A, 연제, 핍팅스페셜이 공동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수영구체육회

제23회 수영구배드민턴협회장기대회 개최

4월 19일(일) 남구국민체육센터에서 '제23회 수영구배드민턴협회장기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동호인 등 250여 명이 참가해 남녀 단식, 복식, 혼합복식 등 다양한 종목에서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쳤다. 특히 승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대회는 가족과 동호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응원하는 모습으로 지역 스포츠 축제의 의미를 더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구군체육회 소식

B U S A N S P O R T S C O U N C I L



금정구체육회

금정구체육회-삼세한방병원 업무협약 체결

금정구체육회가 4월 23일(목)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삼세한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체육과 의료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여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건강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금정구체육회 임직원과 직원 직계 가족, 회원종목단체 회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체육인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정구체육회는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서구체육회

2026 강서구체육회 임원 단합연수회 개최

강서구체육회가 4월 21일(화) 경북 의성 고운사와 안동하회마을 일원에서 '2026 강서구체육회 임원 단합연수회'를 진행했다. 이번 단합대회에는 임원 및 위원 40명이 참석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2026년 주요 추진사업 일정 보고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친환경 자연 관광지 견학 및 지역 생활체육시설 탐방을 통해 강서 체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는 2026년 한 해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하고, 임원진의 단결된 의지를 확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상구체육회

2026 구민과 함께 낙동강정원 걷기대회 개최

4월 12일(일) 삼락생태공원 럭비구장에서 '2026 구민과 함께 낙동강정원 걷기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구민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낙동강변을 따라 조성된 약 5km 코스를 함께 걸었으며, 식전 공연과 체천 프로그램,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구성이 행사에 활기를 더했다. 이번 걷기대회는 자연 속에서 소통과 힐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하며 사상구를 대표하는 생활건강 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기장군체육회

2026 기장군 체육인대축전 개최

기장군 체육인들의 축제인 '2026 기장군 체육인대축전'이 4월 11일(토)부터 4월 19일(일)까지 개최됐다. 대회는 11일 테니스와 검도를 시작으로, 12일에는 축구·배드민턴·탁구·볼링·패러클라이딩 경기가 진행됐으며, 17일에는 그라운드 골프와 파크골프, 18일에는 배구·게이트볼·태권도, 19일에는 탁구와 야구 경기가 이어졌다. 단순한 경기의 장을 넘어 지역민 화합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 이번 대회를 통해 기장군 체육인들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01 부산국민체육센터



부산국민체육센터 무료 공개수업 개최

4월 22일(수), 부산국민체육센터가 5월에 개강하는 신설 프로그램 국학기공 홍보를 위한 무료 공개수업을 개최했다. 이번 공개수업은 지속적인 사전 홍보를 통해 2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국학기공 공개수업에 참가한 한 회원은 “국학기공 수업을 통해 이웃과 만나 안부도 묻고, 건강 또한 챙길 수 있어서 행복하고 수업하는 날이 기다려진다”는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도 부산국민체육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여러 종류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02 북구국민체육센터



북구국민체육센터 화재 대응 소방훈련 실시

4월 22일(수), 북구국민체육센터가 ‘2026년 상반기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상황에 대비해 시설 종사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소방서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훈련은 센터 내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북부소방서 대원들은 소화전 및 소방 시설 사용법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유도 요령 등 실전 위주의 교육을 실시했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이 외에도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사고 없는 체육센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03 강서구국민체육센터



강서구국민체육센터 상반기 소방훈련 실시

강서구국민체육센터가 4월 28일(화) 직원들의 화재 대응 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상반기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으며,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직원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회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한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04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2026년 동래구·연제구 협회장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 개최

4월 25일(토)과 26일(일), 사직테니스장 외 2곳에서 ‘2026년 동래구·연제구 협회장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양일 각 250명씩 총 500여 명의 동래구·연제구 소속 테니스 동호인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는 참가자들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페어플레이 정신을 고취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테니스 생활체육 활성화의 표본이 되어, 향후 테니스 생활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05 부산실내빙상장



부산실내빙상장 청소년 빙상 체험학습 운영

부산실내빙상장이 4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빙상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북구청과 북부교육지원청의 협약을 통해 관내 초등학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문 강사진이 안전교육부터 기초자세, 자유키스케이팅 활동까지 참여하며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제공한다.

참가 학생들은 빙상 스포츠를 통해 신체 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도전과 경험으로 자신감과 성취감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6 신평장림체육관



체육관 샤워실 파티션 철거 및 바닥 부분 방수 공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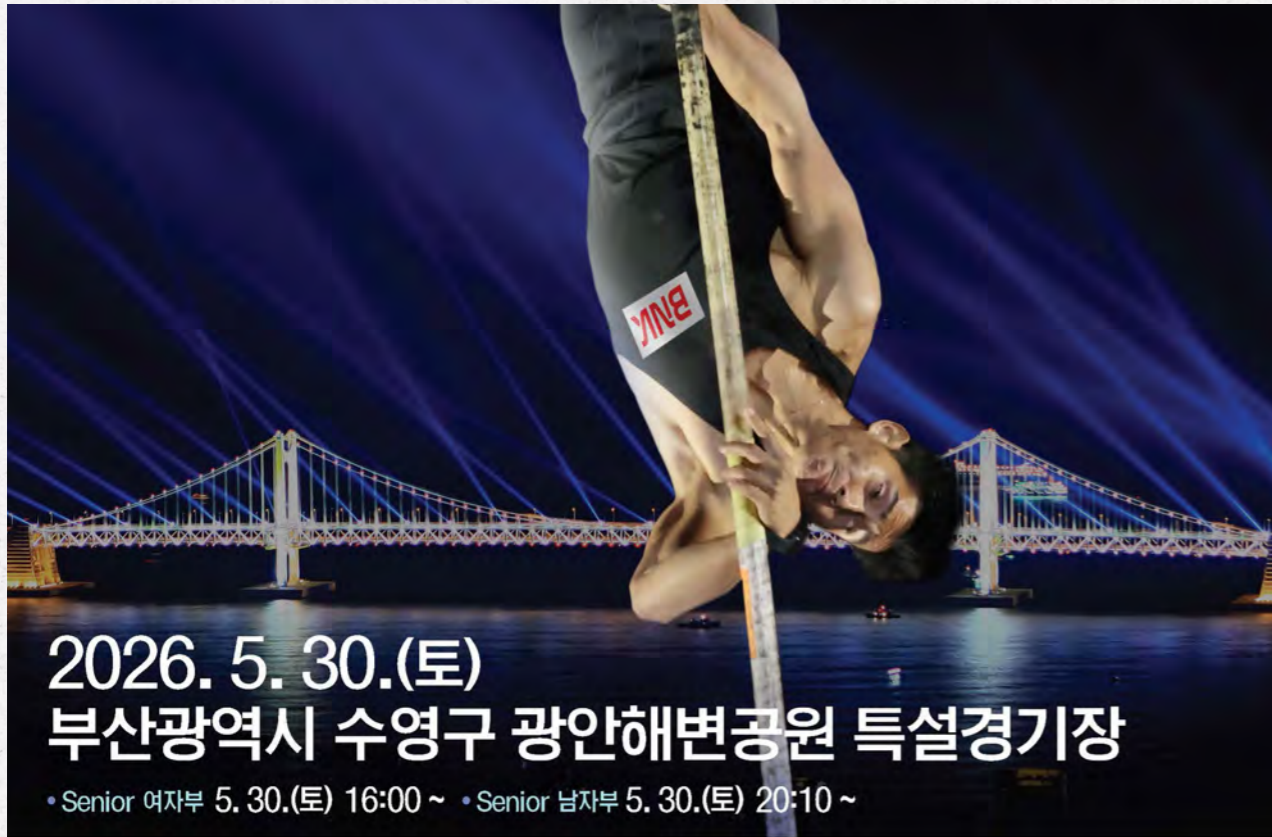
지난 4월, 이용객이 많은 신평장림체육관 샤워실 내부 공간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1·2층 남·여 샤워실 내 유리 파티션 철거 및 바닥 부분 방수 공사가 실시됐다.

샤워실 내 유리 파티션 철거는 공간 협소로 이용객이 붐비는 상황을 고려하고, 유리 재질 구조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철거 구간에 대한 부분 방수 작업도 함께 이뤄졌다.

신평장림체육관은 앞으로도 이용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01

부산광역시육상연맹



2026년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 경기대회 개최

오는 5월 30일 광안해변공원 야외특설경기장에서 ‘2026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 경기대회’가 개최된다. 대한육상연맹이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세계육상연맹(WA) 및 아시아육상연맹(AA)의 공인을 받은 국제 대회로, 15개국 80여 명의 국내외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도심 해변을 배경으로 한 야외 특설경기장에서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색다른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와 관광이 결합된 부산형 국제 스포츠행사로서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표적 지역문화행사인 ‘광안M드론 라이트쇼’와 협업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관중 친화적인 행사로 많은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육상연맹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국제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육상 종목 저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02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전국소년체육대회 부산 대표 선발전 참가, 우수 성과 거둬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은 최근 개최된 ‘전국소년체육대회 부산 대표 선발전’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다수의 부산 대표 선수를 배출하였다. 테니스 종목에서는 총 4명의 선수가 전원 부산 대표로 선발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남초부에서는 김지윤 선수가 2위, 유하진 선수가 6위를 기록하였으며, 여초부에서는 박지원 선수가 3위, 강은우 선수가 5위에 입상하였다. 또한 김경원 지도자가 부산여초부 주무팀 감독으로 선정되었다. 펜싱 종목에서는 총 10명의 참가선수 중 8명이 부산 대표로 선발되며 두각을 나타냈다. 남초부 플리레에서는 감도영 선수가 1위, 이주한 선수가 2위, 임지섭 선수가 3위를 기록하였고, 여초부 플리레에서는 최은수 선수가 2위, 김세은 선수가 3위를 차지하였다. 이어 남초부 에베에서는 문정현 선수가 1위, 이승현 선수가 2위, 여초부 에베에서는 이은상 선수가 1위를 기록하며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특히 각 종목 1위 선수들은 개인전과 단체전에 모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다. 이번 성과는 종목별 전문 지도와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클럽의 유소년 선수 육성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은 앞으로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바탕으로 지역 스포츠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전국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선수들을 배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03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농구팀, 전국소년체육대회 부산 대표 선발

2025년에 창단한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농구팀이 창단 1년 만에 ‘2026년 전국소년체육대회 부산 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부산 대표로 선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이 단기간에 경쟁력 있는 팀을 육성하며 스포츠클럽 기반 선수 육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은 2025년 축구, 농구 등 구기종목 창단 이후 1년 만에 ‘전국소년체육대회 부산 대표 선발전’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부산을 대표하게 되었다. 개인 종목인 수영에서도 꾸준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 부산 대표 선발전’에서 5명이 부산 대표로 선발되며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축구 종목 역시 창단 이후 첫 선발전에 참가해 16강에서 전년도 우승팀인 장산초등학교를 꺾고 결승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최종 준우승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은 지역 스포츠클럽이 전문 선수 육성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2026년 단체구기종목 과학화훈련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 체계적인 훈련과 선수 발굴을 이어가며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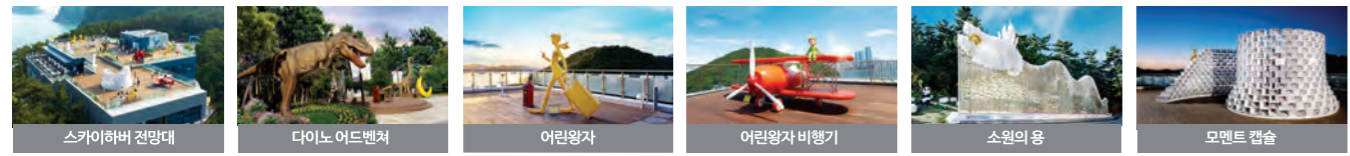
www.busanaircruise.co.kr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파트너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문의전화 051)247-9900  송도해상케이블카  DaewonPlus Group
대원플러스그룹



www.eunsan.co.kr

銀山

World Best Global Leader Eunsan

됐다!됐다!잘됐다!더 잘 된다!



회장 양재생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파트너



글로벌 종합물류, 은산해운항공 OCEAN CARGO 해상화물 / AIR CARGO 항공화물 / WAREHOUSE 창고보관업 / HOUSEHOLD GOODS 이주화물 / INLAND TRANSPORTATION 내륙운송
EXPORT PACKING 수출 포장업 / LCL CONSOLIDATION LCL 화물 / PROJECT CARGO, HEAVY/BULK CARGO 프로젝트, 중량 / 벌크화물

전화 : 051-441-9966 / 02-772-9966 팩스 : 051-441-9969 / 02-773-9969 E-mail : info@eunsan.co.kr



프로들이 선택한 No.1 스포츠 브랜드 어썸스타

부산광역시 체육회 후원 스포츠 & 피트니스

KEEP GOING AWESOMESTAR



GIANTS
PARK SE-WOONG **2025**
NEW

AWESOME STAR

<https://awesomestar.co.kr>

부산시 체육회 공식 스폰서

The Best Steel For The Better Company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정신으로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TRANSFORMED FUTURE
이우원티베스틸
강원 횡성군 횡성읍 하리 25-1
Tel: 055-259-2000 Fax: 055-259-2020
<http://www.finebesteel.com>



TRANSFORMED FUTURE
이우원티베스틸
부산시 사상구 광장로 10 화인빌딩 15층
Tel: 051-796-7000 Fax: 051-796-7069
<http://www.ficorea.com>



TRANSFORMED FUTURE
동일스틸렉스리우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6-1
Tel: 051-322-1177 Fax: 051-326-5655
<http://www.dongilsteel.com>

척추·관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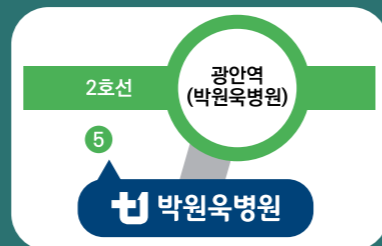
슬기로운 의사들의
환상적인 드림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226-중-163463호

| 척추·관절 | 척추측만증 | 척추 재수술
| 스포츠재활 | 통증·도수치료 | 뇌·신경질환

대표전화 | 1544-7582



안녕하세요.
1등 테크 기업, 화승입니다

화승은 압도적 탄성체 기술력을 보유한 1등 테크 기업으로 앞서갑니다.
초격차의 기술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갑니다.

No.1 Tech Company
HWASEUNG

HWASEUNG 화승은 인화(人和)의 경영이념 아래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1등 테크기업이라는 비전으로 수익성 최우선, 사회적 가치 실현, 고유한 기업자산 구축의 핵심가치를 통해 100년 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자동차부품

스포츠패션ODM

소재

종합무역

화학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꿈을 향한 무한 질주 BNK가 응원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질주!
그 끝에 전율과 감동으로 하나되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스포츠,
BNK부산은행이 함께 합니다



| BNK부산은행 육상실업팀 최기만 선수 |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행복온도°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도시가스는 '함께'의 세상을 실현합니다.
사람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
부산도시가스가 행복온도(溫道)를 만들어갑니다.

부산도시가스 | SK 이노베이션
E&S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

- 행복도시락 (2007~)
- 사랑의 김치나눔한마당 (2011~)
-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 (2020~)
-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협약 (2022~)

보편적 에너지복지를 위한 노력

- 에너지소외계층 안전점검 및 CO경보기 지원 (2007~)
- 복지시설 노후 가스기기교체지원 (2015~)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 착한에너지학교 (2011~)
- 행복한 에너지 동행 (2023~)

